

정 답 표(1교시)

제14회 S-TOPIK 중급(B형)

영역 : 어휘및문법, 쓰기

문항번호	정 답	배 점
1	①	3
2	③	3
3	④	3
4	③	3
5	②	3
6	③	3
7	②	3
8	③	4
9	②	3
10	①	4
11	④	3
12	①	3
13	④	4
14	③	4
15	②	3
16	③	3
17	④	4
18	②	3
19	④	4
20	③	3
21	②	3
22	②	3
23	④	3
24	①	3
25	①	4
26	④	4
27	②	4
28	①	3
29	③	4
30	①	3
31	④	4
32	②	4
33	④	4
34	③	4
35	①	4
36	②	4
37	①	4
38	③	4
39	②	4
40	④	4

문항번호	모범답안 및 채 점 기 준 (주관식)	배 점
41	<p>6점: 너무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잠이 들었다 (앞: -어서 / 뒤: -자마자)</p> <p>5점: 너무 피곤해서/피곤하니까 집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다 나는 너무 피곤하면/피곤할 때 집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다. (앞: -어서, 으니까 / 뒤: -어서)</p> <p>3점: 너무 피곤한데/피곤하면 집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다 두 연결 어미 중에 한 개만 맞았을 때</p> <p>※ 종결어미로 문장의 의미가 이상해지는 경우 -2</p> <p>※ 철자: 1개 -1, 2개 이상 -2</p> <p>※ 시제 오류: 앞 연결어미 -1, 뒤 연결어미 -6</p>	6
42	<p>6점: 네가 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모임에 늦더라도 꼭 와라 ~ 기다릴 거니까 모임에 늦어도 꼭 와라</p> <p>5점: ~ 기다리니까 모임에 늦어도 꼭 와라</p> <p>4점: ~ 기다리니까 모임에 늦어도 꼭 오세요</p> <p>3점: ~ 기다리니까 모임에 늦지만 꼭 와라 ~ 기다리면 모임에 늦더라도 꼭 올래?</p> <p>3점: 두 연결 어미 중에 한 개만 맞았을 때</p> <p>※ 철자: 1개 -1, 2개 이상 -2</p> <p>※ 시제 오류: 1개당 -1</p>	6
43	<p>6점: 놀이 도구가 아니라 / 가지고 놀 수 있는 물건만이 아니라 /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/ 재미만 주는 도구가 아니고</p> <p>5점: 놀이 도구가 아니라</p> <p>3점: 작은 사회를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</p> <p>※ 철자: 1~2개 -1, 3개 이상 -2</p>	6
44	<p>6점: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/ 같아 보이지만 / 같아 보이는데 / 같다고 하는데</p> <p>5점: 같은 것 같지만 / 동일하지만 (단정하는 표현일 경우 -1)</p> <p>4점: 눈동자의 크기는 항상 동일하다고 하는/같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. (관형형으로 만들 경우 -1)</p> <p>※ 대략 의미가 통하게 만들었으나 오류가 있는 경우 오류당 -1</p> <p>※ 철자: 1~2개 -1, 3개 이상 -2</p> <p>※ 시제 오류: 1개당 -1</p>	6
45	<p>6점: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할수록</p> <p>4점: 계속 비교하다가 보면 / 객관적으로 보면 / 평가하다가 보면</p> <p>3점: 생각하면</p> <p>※ 철자: 1~2개 -1, 3개 이상 -2</p> <p>※ 시제 오류: 1개당 -1</p>	6

46	<p>· 제시 내용을 모두 포함하지 않은 경우: 제시 내용당 -5 · 분량: 400자 이하 / 600자 이상: 100자당 -5 · 철자 및 문법 항목: 1~3개 -1, 4~6개 -2, 7~10개 -3, 11~15개 -4, 16개 이상 -6 · 모범 답안</p> <p>모범 답안</p> <p>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이다. 나의 담임 선생님은 오십이 넘으신 그 당시로는 할아버지 선생님이셨다. 3학년에 올라갔을 때 멋있거나 예쁜 선생님을 기대했다가 선생님을 보고 그만 실망을 했다. 어린이날 운동회 때 나는 ‘쪽지 보고 달리기’를 했다. 쪽지에 적힌 내용은 ‘아버지 손잡고 달리기’였다. 사실 나는 일곱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날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. 바로 그때 쪽지를 들고 가만히 서 있는 나에게 선생님이 달려오셨다. 그리고 내 손을 꼭 잡고 뛰기 시작하셨다. 나는 놀랐지만 다른 생각을 할 사이도 없이 뛸 수밖에 없었다. 우리는 열심히 달렸고, 그리고 1등을 했다.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내 어머니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. “오늘은 제가 수영이 아버지입니다.” 선생님의 그 따뜻한 목소리에 내 눈에서는 눈물이 비 오듯 흘렀다. 아버지가 너무나 그리울 때였기 때문에 선생님의 그 행동은 지금까지도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. 나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 때 내 손을 꼭 잡고 계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른다.</p>	30
----	--	----